

위산역류

각종 통증
수족냉증

항문폴립

요실금·잔변
대상포진

불면증

어지럼·두통
관절염

이명·치질

치루·변비
생리통

**이 많은 병의
뿌리는 바로
뼈 독소에 있다!**

항문이 열리고 골반이 상하면서 병이 생긴다

왜 나이가 들며 자꾸 넘어지고 통증으로 고생할까

#1. 어느 날 대, 소변이 조절이 되지 않고 입맛은 떨어지고 힘이 빠지는 것은 왜일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갑자기 내게 찾아와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끔찍 속앓이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처음에는 늙으면서 찾아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담담히 받아들이다가 실제로 기저귀를 차고 지팡이에 의존해 다닐 정도가 되면 낙담이 되어 외출을 꺼리게 되면서 우울증, 치매, 파킨슨병 등 더 큰 병을 가져와 자녀들에게도 짐이 되게 된다. 평소 미라클터치로 뼈 관리를 해주면 80~90대가 되어도 팔팔하게 보행을 할 수 있고 각종 통증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오늘은 병이 뼈를 통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병① 괄약근이 풀려 대, 소변이 줄줄 새어 기저귀를 찹니다

괄약근은 항문과 질 속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 조여지지 않습니다. 케겔운동을 해도 안되는 까닭은 안에 독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문삽입형을 끼고 있으면 저절로 독소가 빠져 1~3달 내에 조여져 대, 소변 새는 것이 사라집니다. 덤으로 치질, 치루, 변비, 잔변감, 잔뇨감이 사라집니다.

▲**실제사례:**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했던 89세 된 여성이 항문과 질 삽입형으로 대, 소변이 조절되었고 변이 줄줄 새던 83세 남성이 4개월만에 기저귀를 떼고 매일 딱가래처럼 굵은 변을 보았다. 또 10년간 관장약을 15번 바꾸며 고생하던 92세 남성도 평생 변비에 서 해방되는 기적을 맞보았다.

병② 자꾸 걸음이 작아지고 넘어져 골반이 부서져 고생해요

배변을 한 후 항문 내에 남아있는 변은 하루가 지나면 썩어 맹독을 만들고 꼬리뼈와 골반에 스며들어 뼈를 상하게 합니다. 이후 골반과 허벅지가 만나는 고관절이 상해 발끝으로 가는 기운이 막혀 발가락이 꼬이고 발사이즈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급기야 골반이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사례:** 지팡이에 의존하며 다녀야 했던 80대 이 모씨가 깔판형과 침봉형을 꾸준히 사용해 골반을 살려 1년 만에 지팡이 없이 걸어다니게 되었고 지난 2년간 미라클터치를 꾸준히 사용한 60대 여성은 사우나에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골반이 멀쩡해 안도의 숨을 쉬었다.

병③ 쥐가 나고 무릎과 발목이 퉁퉁 붓고 발톱무좀이 심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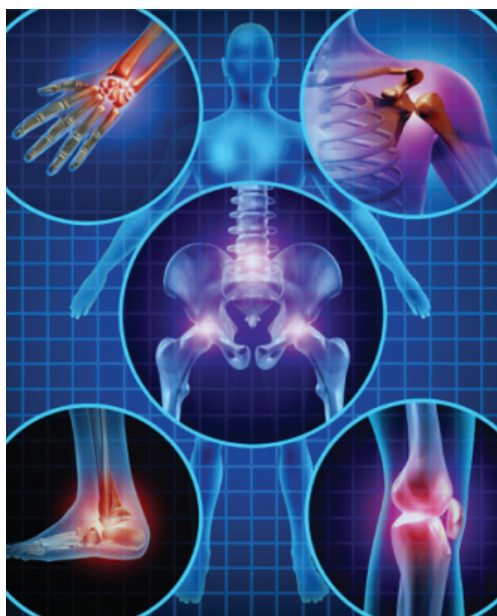
발은 혼자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엄마 역할을 하는 골반이 상한 후에 찾아옵니다. 쥐가 자주 나는 분은 발찌형을 차면 해결됩니다. 무릎과 발목이 붓고 무좀이 심한 분은 고관절의 독소를 없애면 됩니다. 서서히 발톱이 새롭게 나오고 무릎과 발목 부종이 사라지는 기적을 맞볼 수 있습니다.

▲**실제사례:** 심한 무좀을 갖고 온 80대 여성이 깔판형으로 7개월간 고관절의 독소를 열심히 빼주자 죽은 발톱이 싹 빠져 나가고 새 발톱이 나왔다. 잘 걷지도 못할 정도의 70대 무릎통증 환자가 항문형과 침봉형으로 고관절부터 발끝까지 뼈를 터치해 당당히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

병④ 위산역류, 허리통증, 불면증, 이명, 공황장애가 생겼어요

상기의 병은 항문의 변 독소가 꼬리뼈를 타고 허리를 거쳐 흉추, 경추에 스며들어 생기는 병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반부터 두개골까지 깔판형과 침봉형으로 지속적으로 다스려주면 동시다발로 사라지게 됩니다. 독소가 피부로 빠져 나오게 되면서 에너지가 꼬리뼈에서 위로 흘러가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사례:** 위산역류와 불면증으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던 70대 여성이 미라클터치를 만나 웃음을 찾게 되었고 남편은 이명에서 탈출하게 되었다. 40대 여성은 지난 7년간 외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공황장애로 시달리다가 미라클터치를 만나 이제는 당당히 공연장을 다녀 올 정도로 회복이 되었다.



대, 소변독이 쌓이면 꼬리뼈부터 다쳐 골반이 상하게 된다. 이후 고관절, 무릎, 발목, 손목, 어깨에 관절염이 생기고 발빠가 막히면서 에너지가 두개골까지 흐르지 못해 치매, 파킨슨병, 중풍을 동반하게 된다.

어떻게 뼈속 독소를 없애나

먼저 병이 시작된 뿌리인 항문과 질에 삽입형을 이용해 대, 소변 독소를 뽑아준다. 독소가 기체로 빠져 나가 항문과 질이 저절로 조여져 항문폴립, 잔변감, 잔뇨감, 치질, 치루, 변비, 요실금에서 생각보다 쉽게 해방이 된다. 동시에 골반과 온 몸 전체의 뼈속 독소는 침봉형과 깔판형을 이용해 뽑아준다. 독소가 피부로 빨갱게 빠져 나오고 대, 소변으로 나오면 솟았던 뼈가 원래 상태로 찾아가면서 근육과 신경은 저절로 회복이 되어 관절염 등 각종 통증과 위산역류, 수족냉증, 불면증, 이명, 공황장애 등 고질병이 사라진다. 쥐가 자주 나는 분은 발찌형, 배속과 수족이 냉하거나 배살로 고민하는 분은 허리벨트를 쓰면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보게 된다.

제품설명 및 체험사례는 미주중앙일보(www.koreadaily.com) 블로그나 유튜브에 가서 검색란에 미라클터치를 치면 볼 수가 있다. 오픈 시간은 평일 10시부터 오후 5시, 토요일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라클터치 제품별 사용법 및 효능

1. 각종 통증, 염증제거 침봉형

허리, 목, 무릎, 발목, 고관절 등 각종 통증과 염증에 좋은 침봉형. 누르고 문질러주면 독소가 피부로 빨갱게 나오고 대, 소변으로 빠져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신경이 살아나 통증이 사라진다.



2. 항문폴립, 치질, 변비 탈출 삽입형

항문과 질에 삽입하면 대, 소변의 독소가 빠져나가 괄약근과 질이 탄력을 찾아 조여져 변비, 치질, 요실금, 잔변, 잔뇨감, 생리통, 생리불순, 전립선이 놀라게 회복된다.



3. 쥐나거나 중풍, 감기 예방 발찌형

막힌 발목관절의 독소를 없애 에너지가 흘러 매일 쥐가 나는 분도 해방된다. 아울러 중풍을 예방해주고 발이 꼬여 자주 넘어지는 분에게 좋다. 목에 돌려주면 감기 예방에 효과를 본다.



4. 골반, 등판 통증제거 깔판형

매일 엉덩이와 등판에 깔고 자면 뼈속 독소가 빠져 살을 에는 듯한 통증이 사라진다. 고관절, 어깨, 목 통증과 위산역류에 특히 좋다.



5. 목통증, 치매 예방, 발모 경추형

목뒤가 불룩 튀어나와 두개골과 팔로 가는 기운이 막힌 분에 좋다. 머리를 문질러주면 치매, 어지럼증, 두통, 파킨슨병에 좋고 머리카락이 새롭게 나온다.



6. 허리통증, 배살제거 벨트형

70여개의 침봉이 허리 3~5분 주위로 에너지를 넣어 독소를 없애줘 통증이 사라지고 배변에 도움을 줘 동배가 빠진다. 배속이 꼬여서 불편한 분에 즉각 효과가 있다.



미라클터치 LA본점
213-675-6877
3544 W Olympic Blvd #212
Los Angeles, CA 90019

Crenshaw Blvd
Westchester Pl
S. Wilton Pl
S. Western Ave
청기와 식당
W. Olympic Blvd
● 미라클터치 LA 제임센터
(한국중앙의료원 건물 내)

플러턴점 (월, 수, 금 오픈)
213-255-1410
653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39
N. Euclid St
N. Woods Ave
S. Harbor Blvd
● 미라클터치 플러턴 지점
W. Commonwealth Ave
91